

과제 유형에 따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용어 이해 실태 양상

Status of Korean Idiom Understanding for Chinese Learners of Korean according to Tasks

이미경*, 강안영**, 김윤주***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연세말언어연구소**, 동신대학교 아동영어교육학과***

Mi-Kyung Lee(amykyung@naver.com)*, An-Young Kang(ka8101@nate.com)**,
Youn-Joo Kim(yunjk5467@naver.com)***

요약

현재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숫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이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색을 많이 포용하고 있는 관용어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남도 S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과제유형(문맥여부, 친숙도, 투명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및 전공에 따른 관용어 이해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오류 패턴 분석을 통해 한국의 관용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들은 과제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변인에 따른 관용어의 이해에 있어서는 성별, 한국어 능력 및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용어 이해에서 오류 패턴을 살펴본 결과 독립과제에서는 문자적 오류 외의 오류 비율이 높았으며, 문맥과제에 있어서는 문맥과 관련한 오류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 관용어 이해 |

Abstract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tested the effects of context, transparency, familiarity and related variables on comprehension of 32 idioms in 87 Chinese learners of Korean who were attending the S university in Jeonnam providence.

In the first assessment, idiomatic phrases were presented out of context. In another assessment, idiomatic phrases were embedded in supportive story contexts. To examine the difference based on task types, paired t-test or one-way ANOVA was used to test differences on related variables such as TOPIK, years of residence in Korea, major and etc. on idiom comprehen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ask type, familiarity and transparency were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idiom comprehension for Chinese learners of Korean. Second, the related variables such as TOPIK, and maj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diom comprehension. Third, percentage of context related interpretation error in context task was the highest. Literal interpretation errors were followed by it. It means they have a tendency to use contextual cues and semantic analysis of the phrase to comprehend Korean idioms.

The results of study will be used to make a plan for teaching Chinese learners of Korean.

■ keyword : | Chinese Learners of Korean | Idiom Understanding |

1. 서론

국제 결혼 및 외국인 노동자의 수의 증가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2] 결혼이주나 노동이주 외에도 한국에서 유학을 위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숫자를 집계한 2014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의하면 전체 유학생 84,891 중 중국인 학습자는 50,336명(5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 이와 같은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는 현재 속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주류 언어이다. 그 나라의 주류 언어를 학습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어휘들의 형태, 의미, 활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아는가’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다양한 구어 표현을 위해서는 기본 어휘와 더불어 관용어, 속담, 감탄사, 고유명사, 외래어 등을 포함한, 이른바 ‘문화기반어휘’의 습득이 필수적이다[13]. 이는 곧 그 나라의 언어에는 많은 문화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기반의 언어 중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관용어이다[8]. 관용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역사적 전통 또는 문화적 배경에 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관용어에는 현 사회인들의 공통적인 인식과 문화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회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인 학습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언어요소이기도 하다[20].

이 외에도 관용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심리, 인지 작용을 잘 보여주는 표현으로써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어휘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배경지식, 문화적 경험에 대한 공유 등도 필요하다. 게다가 관용어는 유래담을 소유하거나 일반적 낱말 보다 표현 효과가 강한 경우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경우 그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

우 의사소통의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관용어 학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관용어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재치 있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내용을 강조하며, 인상을 깊게 하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간결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두루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익힌다면 의사소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관용어를 익혀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기표현의 욕구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13]. 이 외에도 박영순[10]이 강조하였듯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용어 학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관용어를 익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며, 중국인 학습자에게도 어려운 어휘 학습 분야이다[28]. 한국어와 중국어가 일부 공통성을 지니나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언어의 표현 형식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게다가 2개 이상의 어휘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어휘 결합의 형식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이 학습자의 모국어 지식과 사전적 지식만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된다[24].

이러한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관용어 학습은 다른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서는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 어휘 체계 중 50%를 넘게 차지하는 한자어가 중국어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면서도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용어 학습에 대해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많다. 현재까지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용어 연구들은 실제 그들의 관용어 이해능력을 보는 연구보다는 그들을 위한 관용어 교육방안[14], 한국어 관용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원 제시[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관용어 대조 연구[13], 중국인에 대한 한국어 속담과 관용어 교육에 관한 연구[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목록 구성[4], 중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에 대한 어휘 교육 연구[12][29] 등이 주를 이룬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관용어 지도를 위한 어휘 목록, 지도에 유용한 관용어 등에 관해서는 밝혀졌으나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관용어 이해능력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용어는 민족의 오랜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들의 사고, 감정, 가치관, 의식 구조가 반영된 정신문화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용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실제적인 이해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관용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관용어 이해 및 학습에는 관용어의 투명성, 친숙도, 문맥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30]. 즉, 아동과 청소년 모두는 투명한 관용어가 불투명한 관용어보다 더 쉽게 이해되고[6][32][33][38], 친숙한 관용어일 때, 그리고 그것이 문맥 속에서 제시되었을 때 이해 및 학습이 용이해진다[34]. 친숙도는 관용어 표현이 언어 속에서 얼마나 자주 출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청자가 특정 관용어를 얼마나 자주 듣거나 읽었는지로 측정가능하다[25]. 투명도는 관용어를 구성하는 낱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관용어의 상징적인 의미해석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불투명한 유형은 낱말이 가지는 고유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와의 연관성이 적어 낱말의 원래 의미에서 관용어의 의미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9].

문맥 또한 관용어 이해를 촉진시켜주는 주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관용어는 독립적으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지지하는 문맥 속에서 제시될 때 이해가 더 잘된다[33][36]. 문맥은 표현의 적절한 의미를 추출하고 추론하는데 필요한 의미론적 정보가 제공되는 비유적 언어를 독자가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준다[30].

친숙도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및 어른의 관용어 이해에 친숙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34][37]. 이진숙과 박소영[18]은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관용어의 이해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친숙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앞서 제시된 변인들 외에도 한국어 능력, 한국 거주 기간 변인 등이 중국인 학습자의 관용어 학습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조사한 결과, 중국 한족 출신의 여성의 경우 3년차를 넘어설 때부터 한국어 능력검사에서 60%이상의 정답률을 보였다고 하였다[3]. 일본어권 아동과 청소년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시어 습득을 조사한 결과, 거주기간 및 학습기간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21]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는 관용어 학습에는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및 한국어 능력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용어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관용어 이해에서 보이는 오류를 분석하여 그들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관용어 지도를 위한 교육과정, 교수방법 및 교육계획 수립 및 결혼 이민자, 노동 이민자 등의 성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를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제시 방법(독립과제와 문맥과제) 및 과제 유형(투명과 불투명, 친숙과 친숙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의 관용어 이해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변인(성별,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전공)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의 관용어 이해에 차이는 있는가?

셋째, 과제제시 방법에 따른 관용어 오류유형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S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용어 이해검사에 참여한 학생은 92명이었으며, 체점과정에서 연속

5문항을 무응답 한 5명의 결과지를 제외하고 총 87명의 학생의 결과지를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연구대상의 기초정보는 [표 1]과 같다.

분석에 사용한 총 87명 중 남성은 42명(48.3%), 여성은 45명(51.7%)이었다. 이들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인 68명(79.2%)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 25명(28.7%), 2년 미만이 25명(28.7%)이었다.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는 가장 많은 것이 1급 22명(25.3%), 그 다음으로는 2급 17명(19.5%)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기초 정보

	구분	빈도(N)	비율(%)
성 별	남성	42	48.3
	여성	45	51.7
전 공	제품디자인	31	35.6
	경영학	33	37.9
	국제 한국어교육	23	26.4
한국어 학습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68	78.2
	3년 이상-6년 미만	19	28.7
한국어 능력 (TOPIK)	없음	3	3.4
	1급	22	25.3
	2급	17	19.5
	3급	10	11.5
	4급	18	20.7
	5급	13	14.9
	6급	4	4.6
	계	87	100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25	28.7
	2년 미만	25	28.7
	3년 미만	22	25.3
	3년 이상	15	17.3

2.2 검사도구 개발

2.1.1 관용어 항목 선정 및 검사도구 작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용어 항목은 총 32개였으며, 관용어 항목의 선정 및 검사도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김부경, 채영희[4], 배규범[11], 심혜령[12], 장정정[19], 한미연[23], 현혜숙[24], 황미현[26]의 문헌을 참조로 본 연구에 사용할 관용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관용어의 이해 확인을 위해 문맥이 제시되지 않는 독립 과제와 문맥이 제시되는 문맥 과제, 두 가지 세트로 검사 도구를 작성하였다. 독립 과제의 제시는 관용어 이해 능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

이 있으며[36], 비유 언어는 맥락 속에서 이해가 잘된다는[30] 근거 하에 독립과제 외 문맥과제를 구성하였다. 문맥 과제는 4가지 보기 중에서 적절한 답을 고르게 하는 사지선다형으로 작성하였다. 셋째, 문맥 과제를 위해 각 관용어 당 4-5문장으로 구성된 문맥을 만들었으며, 전체적인 길이를 비슷하게 조정하였다. 문맥 과제에서 구문의 복잡성이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 문장의 길이는 최대 9 어절 이내로 구성하였다. 넷째, 문맥 과제에 따른 관용어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 당 4개의 객관식 보기를 만들었다. 보기는 관용적 해석, 문맥과 관련된 해석, 문맥과 관련 없는 해석, 문자적 해석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각 관용어에 따른 문맥의 맥락 및 예제가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언어병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언어치료사 1인, 언어병리학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언어치료사 2인, 국문학을 전공하였고 대학에서 한국어 교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내용타당도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검증에서 4점 이상을 받은 문항은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문항의 예제는 수정-재검증을 거쳤다. 여섯째, 전문가로부터 타당도를 거친 검사지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인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내용의 적합도 및 친숙도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내용 적합도의 검증은 본 검사를 위해 구성된 문맥 과제를 제시한 후 이들에게 어휘의 난이도 및 문맥의 이해도에 관하여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이들이 어려워하는 어휘 및 문맥을 수정하여 최종 관용어 검사지를 구성하였다. 관용어의 친숙도에 대한 검증을 위해 최종 결정된 관용어 목록을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중국인 학습자 10명에게 제공하였다. 3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 것은 친숙한 것, 3점 미만은 비친숙한 것으로 나눈 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일곱 번째, 독립과제는 문맥을 없애고 관용어만 제시하여 뜻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순서는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문맥과제 또한 각 관용어 유형별로 섞은 후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실험에 적용한 독립과제의 예는 [표 3]과 같으며, 문맥과제의 예는 [표 4]와 같다. 연구에 사용된 관용어 목록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2. 검사항목의 구성 (단위 개)

투명도	친숙도	친숙	친숙하지 않음	계
투명		8	8	16
불투명		8	8	16
계		16	16	32

3. 연구절차

중국인 학습자의 관용어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과제를 먼저 실시한 후 문맥 과제를 실시하였다. 과제는 각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율 세미나 시간을 이용해 실시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였다. 본 실험 과제를 제시하기 전에 연습문제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대상자들이 관용어 과제를 실시하는 동안 중국어 통역은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 1연구자가 직접 참여 및 감독하여 각자 조용히 문제를 읽고 풀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과제는 [표 3]과 같으며, 문맥과제는 [표 4]와 같다.

표 3. 관용어 독립 과제 검사문항의 예

'영덩이가 가볍다'는 무슨 뜻일까요? ()	
① 문자적	영덩이의 살이 빠지다.
② 문맥무관	선영이는 학원을 그만 두었다.
③ 문맥관련	학원보다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④ 관용	한 자리에 오래 못 있고 바로 자리를 뜬다

표 4. 관용어 문맥 과제 검사문항의 예

선영이는 다음 주에 시험을 본다. 선영이는 학원을 안가고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기로 했다. 선영이는 공부하다가 물을 마시기도 하고 화장실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자 엄마가 "영덩이가 가벼워 시험이나 제대로 보겠니?"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영덩이가 가볍다'는 무슨 뜻 일까요? ()	
① 문맥무관	선영이는 학원을 그만 두었다.
② 관용	한 자리에 오래 못 있고 바로 자리를 뜬다
③ 문자적	영덩이의 살이 빠지다.
④ 문맥관련	학원보다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4. 자료 분석

4.1 관용어 문항 과제 채점

관용어 문항은 독립과제 및 문맥과제 모두 정답은 1 점, 틀린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각 세트 당 32점이 만점이며, 두 세트 만점은 총 64점이 되게 하였다.

4.2 오류 유형 분석

독립과제의 경우 문맥과제와는 다르게 문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표 3]과 같이 관용어만을 제시하고 그 뜻을 찾게 하였다. 또한 문맥과제와 동일한 보기를 제시하였으나 그 순서를 섞어두었다. 따라서 독립과제의 오류는 크게 문자적 오류와 그 외의 오류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문맥무관과 문맥관련 자료를 답으로 체크하는 경우 모두 그 외의 오류 유형에 포함시켜 살펴보았다. 문맥 과제의 경우 문자적 해석 오류, 문맥관련 오류, 문맥무관 오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오류를 분석은 '오류비율(%)=오류유형별 빈도 수/ 총 오류 수 X 100'으로 계산하였다. 그 후 각 오류유형에 따른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5. 자료 처리

모든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ver.20.0) 프로그램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1) 과제제시 방법, 투명도 유형별, 친숙도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2) 성별 및 한국어 공부기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어거주기간, 한국어능력, 한국어 학습기간 및 전공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은 scheffé로 처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과제제시방법, 과제유형에 따른 관용어 이해

중국인 학습자의 관용어 이해에 있어 과제제시방법 및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중국인 학습자의 과제제시 방법, 친숙도, 투명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

	과제유형	평균	표준편차	t	
중국인 학습자	독립과제	16.6	7.6	.396	
	문맥과제	16.4	8.1		
	투명과제	16.2	7.9	-1.547	
	불투명과제	16.8	7.9		
	친숙과제	16.71	7.6		1.060
	비친숙과제	16.28	7.9		

중국인 학습자의 관용어 이해를 살펴본 독립 과제 및 문맥 과제, 투명 및 불투명 과제, 친숙 및 친숙하지 않은 과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변인에 따른 관용어 이해

변인에 따른 관용어 이해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별, 전공, 한국어 공부기간에 따른 관용어 이해의 차이를 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t=-3.066, p<.05$), 한국어 학습기간($t=-3.415, p<.001$)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관용어 이해 과제에서 평균 37.5($SD=16.1$)로 남자 평균 28.6($SD=12.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학습기간은 3년에서 6년 미만의 집단이 평균 42.3($SD=13.2$)로 1년에서 3년 미만의 집단 평균 30.4($SD=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 변인에 따른 관용어 이해

변인		사례수 (%)	평균	표준 편차	t/f	사후 검증 (scheffé)
성별	남성	42 (48.2)	28.6	12.0	-3.066**	-
	여성	45 (51.8)	37.5	16.1		
한국어 학습기간	1년-3년 미만	68 (78.2)	30.4	14.5	-3.415**	-
	3년-6년 미만	19 (21.8)	42.3	13.2		
한국어 거주기간	1년 미만 (a)	25 (28.7)	31.9	12.5	.103	-
	1년-2년 미만(b)	25 (28.7)	33.4	17.5		
	3년 미만 (c)	22 (25.2)	34.2	14.1		
	3년 이상 (d)	15 (17.4)	32.4	17.0		
전공	디자인 (a)	31 (35.6)	27.6	15.1	3.937*	a<c
	경영학 (b)	33 (37.9)	34.3	15.1		
	한국어 교육학 (c)	23 (26.4)	38.4	12.6		
한국어 능력시험	없음 (a)	3 (3.4)	17.7	8.0	5.238**	c<e<f
	1급 (b)	22 (25.3)	29.1	14.3		
	2급 (c)	17 (19.5)	23.8	6.8		
	3급 (d)	10 (11.5)	33.7	16.3		
	4급 (e)	18 (20.7)	42.8	13.9		
	5급 (f)	13 (14.9)	42.4	13.4		
	6급 (g)	4(4.6)	28.5	17.0		

* $p<.05$, ** $p<.001$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학습기간 및 전공에 따른 관용어 이해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관용어 이해는 한국어 능력($F=5.238, p<.001$) 및 전공($F=3.937, p<.05$)에 따라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인 학습자의 관용어 이해에 있어서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한국어 능력시험에서는 2급과 4급, 5급이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에서는 한국어교육학과가 제품디자인학과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오류 유형 분석 결과

관용어 이해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독립 과제에서의 오류와 문맥 과제에서의 오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독립 과제의 오류는 문맥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적 오류와 그 외의 오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맥 과제의 오류는 문자적 해석 오류, 문맥과 무관한 오류, 문맥적 오류로 구분하여 각 평균 백분율과 표준편차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그림 1]과 [그림 2]는 과제제시 유형에 따른 오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독립과제 오류 유형



그림 2. 문맥과제 오류 유형

표 7. 중국인 학습자 관용어 오류유형

과제제시 유형	오류유형	평균 (%)	표준 편차
독립 과제	문자적 오류	31.71	20.3
	그 외 오류	61.78	25.3
문맥 과제	문자적 오류	34.13	19.8
	문맥관련 오류	40.43	17.5
	문맥무관 오류	25.44	12.1

독립 과제에서 문자적 오류는 평균 31.71%($SD=20.3$)였으며, 그 외의 오류는 61.78%($SD=25.3$)로 나타났다. 문맥 과제에서는 문맥관련 오류가 40.34%($SD=17.5$), 문자적 오류가 평균 34.13%($SD=19.8$), 문맥무관 오류는 평균 25.44%($SD=12.1$)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관용어 이해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교수방법 및 한국어 교수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제제시 방법 및 과제유형에 따른 관용어 이해

첫째, 중국인 학습자의 관용어 이해는 독립과제 및 문맥과제, 투명도 여부, 친숙도 여부에 따라 유의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았다. 외국인 학습자가 아닌 언어성 학습장애 청소년의 경우 관용어가 독립과제로 제시될 때보다는 문맥과제에서 제시될 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40]. 또한 관용어는 문맥 속에서 제시될 때 이해가 쉬우며[31][36], 관용적 표현은 사용된 문맥과의 연관성에서 이해가 잘 된다고 하였다[3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문맥과제 및 독립과제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어와 한국어는 같은 한자 문화권의 언어이며, 중국의 관용어도 한국어의 관용어처럼 의미론적으로 비유적, 파생적인 특성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속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8][15]. 즉, 어떤 새로운 어휘나 표현을 익힐 때 학습자의 모국어와 뜻이 같고 사용법이 같으면 어휘를 표현하는데 어려움

이 없다[20]. 다시 말하면 한국과 중국어는 언어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두 나라간의 공통의식도 존재[20]하는 측면이 있어 문맥과 독립과제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인 중국인 학습자들은 대학에서의 학업을 이수하기 위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이외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인과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구어를 습득하므로 이주자들에 비해 한국어를 사용하고 접하게 되는 기회가 더 많다. 즉, 이들은 여러 맥락에서 관용어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 한국어의 관용어에 익숙해져 친숙도에 따른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Qualls 외[4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관용어의 투명도에 대하여 오소정[16]은 아동과 청소년 집단에서는 투명한 속담에 대한 이해는 높았으나, 성인 집단에서는 투명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최송아와 홍경훈[22]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관용어 이해를 살펴본 결과 이들 집단 또한 투명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관용어는 언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어휘 학습의 일환이며[11], 중국어 관용어와 우리말은 다의어로 구성된 유사한 어휘를 지니고 있다[27]. 이에 따라 현 연구에서 사용된 관용어가 중국어의 어휘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어 투명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곧 관용어 학습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어휘 지도가 가장 우선시 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다.

2. 변인에 따른 관용어 이해

변인에 따른 관용어 이해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성별, 한국어 학습기간, 한국어능력시험 및 전공에 따라 유의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학습기간, 한국어 능력 등이 관용어의 이해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언어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관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전략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며[28], 의미론적 분석 능력 및 어휘 능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관용어 이해는 표현적인 측면보다는 읽기이해에 관련된 항목이다. 읽기와 관용어 이해능력은 상관을 지니며, 읽기 능력이 더 좋은 이들이 더 높은 관용어 이해능력을 지닌다는 선행연구[36][40]에 비추어 본다면 좀 더 높은 한국어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이해능력이 더 뛰어나며, 이러한 측면이 관용어 이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모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따라서 그들은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한국어 학습 환경에 놓여있고,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수학 과정에서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진다[28]. 이러한 학습이 관용어 이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관용어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관용어 이해능력을 증진시키지 않으며[30], 관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선정과 강현자[5]의 문헌에서 관용어는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오랜 시간을 통해 저절로 '체득'되기보다는 '학습'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에서 지시 습득을 살펴본 연구 또한 한국어 거주기간보다는 한국어 학습기간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21]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관용어의 이해 및 습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을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전공에 있어서는 한국어 전공학생들의 관용어 이해 능력이 다른 전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수업이 강독이며, 강독 시간을 통해 한국어 문법, 어휘, 관용어 등에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에[7] 다른 전공에 비해 관용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3. 관용어 대담에 따른 오류유형

독립 과제 및 문맥 과제에서 대담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을 때 문맥 과제의 오류는 문맥과 관련된 보기 문항을 택한 경우가 다른 오류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자적 의미 해석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친숙성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문맥적 단서를 활용한다는 선행연구[40]와 일치하며, 중국인 학습자 또한 비친숙한 관용어는 문맥을 활용하여 이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in과Towse[31]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독립 과제 오류를 분석 결과 문자적 해석 오류는 약 30% 정도였다. 즉, 학습자들은 관용어의 뜻을 이해할 때 제시된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에 집중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중국인 학습자가 독립 과제에서 문자적 답을 선택한 비율은 30%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를 이해할 때 의미론적 분석을 시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가 제 2 외국어인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등은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다음 후속 연구에서는 중국어 능력이 한국어 및 관용어의 학습과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일수와 주진오[17]가 제시하였듯이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속에 관용어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켜 관용어 학습의 효과성 또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관용어의 이해적인 측면만을 조사하고 실제 문맥에서 그들의 관용어 사용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해보지는 못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의 관용어 사용 및 뜻을 적는 과제 등을 통해 문법 및 철자의 오류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 문헌

- [1] 교육부, 2014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정보공개, 2014.
- [2] 구영산, 오상철, 이화진, 장경숙,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교육 지원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pp.1069-1082, 2014.

- [3] 김경령, "결혼이민자의 거주 기간별, 언어권별에 따른 한국어 능력 -10개국 출신의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38권, pp.1-27, 2013.
- [4] 김부경, 채영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목록 구성", *동북아문화연구*, 제34권, pp.261-277, 2013.
- [5] 김선정, 강현자, "한국어 관용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원 제시", *이중언어학*, 제33권, pp.36-56, 2006.
- [6] 김은화, "중국인에 대한 한국어 속담과 관용어 교육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제155권, pp.35-42, 2008.
- [7] 김정남, *중국 국내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속담 교육 현황 분석 및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8] 김희경, *관용어구의 대조언어학적 연구*, *한말연구*, 제18권, pp.93-126, 2006.
- [9] 문금현,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서울: 태학사, 1999.
- [10] 박영순, "제 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지*, 제5권, pp.43-59, 1989.
- [11] 배규범,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육의 실상과 방향-목록선정과 단계별 배치를 중심으로*, 2010.
- [12] 심혜령,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어휘 교육 연구", *계대어문화*, 제41권, pp.89-116, 2008.
- [13] 심혜령,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관용어 대조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pp.103-116, 2009.
- [14] 심혜령, 심형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적 접근을 통하여", *중국문화*, 제61권, pp.265-294, 2009.
- [15] 왕춘위, *관용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3.
- [16] 오소정, *속담 이해능력의 발달: 학령기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 [17] 이일수, 주진오, "드라마 활용을 통한 한국어교육콘텐츠 개선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pp.45-55, 2015.
- [18] 이진숙, 박소영, "관용어의 친숙도, 성별, 학업성취도가 관용어 이해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2호, pp.465-476, 2010.
- [19] 장정정,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의 수준별 목록 선정 방법*, 대불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 [20] 조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 [21] 진은영, *거주 기간 및 학습 기간에 따른 한국어 지시어 습득 양상 연구. 일본어권 아동 및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 [22] 최송아, 홍경훈, "초등학교 5·6학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관용어 이해 능력 비교 분석", *특수교육*, 제11권, 제3호, pp.167-187, 2012.
- [23] 한미연,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목록 선정과 학습 지도 방안 연구.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 [24] 현혜숙,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문맥 유무 및 관용어 유형에 따른 관용어 이해능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 [25] 현혜숙, 김영태, 임동선,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관용어 유형 및 과제제시 방법에 따른 관용어 이해능력", *특수교육학*, 제46권, 제1호, pp.173-195, 2011.
- [26] 황미연,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관용표현 대조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10권, 제1호, pp.171-192, 2006.
- [27] 황정아, *한중 관용어의 표현 양상과 내포 문화 비교*,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8.

[28] 홍중명, "결혼이민자 한국어 학습전략 분석 연구", *우리어문연구*, pp.419-450, 2012.

[29] 후문옥,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0] K. Cain, J. Oakhill, and K. Lemmon,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reading comprehension level and their comprehension of idiom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Vol.90, pp.65-87, 2004.

[31] K. Cain and A. S. Towse, "To get hold of the wrong end of the stick: Reasons for poor idiom understanding in children with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Vol.51, No.6, pp.1538-1549, 2008.

[32] R. W. Gibbs, "Linguistic factor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idioms," *Journal of Child Language*, Vol.14, pp.569-586, 1987.

[33] R. W. Gibbs, "Semantic analyzability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idiom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Vol.34, pp.613-620, 1991.

[34] M. C. Levorato and C. Cacciari, "Children's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idioms: The role of context and familiarity," *Journal of Child Language*, Vol.19, pp.415-433, 1992.

[35] M. C. Levorato and C. Cacciari, "The effects of different tasks on th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idioms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Vol.60, pp.261-253, 1995.

[36] M. A. Nippold and S. T. TMartin, "Idiom interpretation in isolation versus context: A developmental study with adolescen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Vol.32, pp.59-66, 1989.

[37] M. A. Nippold and M. Rudzinski, "Familiarity and transparency in idiom explanation: A

developmental stud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Vol.36, pp.728-737, 1993.

[38] M. A. Nippold, C. Moran, and I. E. Schwartz, "Idiom understanding in preadolescent: Synergy in action," *American Journal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Vol.10, No.2, pp.169-180, 2001.

[39] C. D. Qualls, J. M. Lantz, R. M. Pietzyk, G. W. Blood, and C. S. Hammer, "Comprehension of idioms in adolescents with language-based learning difficulties compared to their typically developing peers,"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Vol.37, pp.295-311, 2004.

[40] C. D. Qualls, R. M. O'Brein, G. W. Blood, and C. S. Hammer, "Contextual variation, familiarity, academic literacy and rural adolescents' idiom knowledge,"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the Schools*, Vol.34, pp.69-79, 2003.

부록 1. 유형별 관용어 목록

투명하고 친숙한 관용어	불투명하고 비친숙한 관용어
가슴이 아프다. 말꼬리를 흐리다. 기가 죽다. 눈 코 뜰 새 없다. 땅에 떨어지다. 뚜껑을 열어보다. 마음에 들다. 손이 모자라다.	가슴에 박히다. 속밭이 되다. 배꼽이 빠지다. 손이 부끄럽다. 입에 풀칠을 하다. 도장을 찍다. 머리에 서리가 내리다. 끈 떨어진 망석증.
투명하고 비친숙한 관용어	불투명하고 친숙한 관용어
가시밭길을 가다. 하늘이 노랗다. 월계관을 쓰다. 피가 웅숭음치다. 눈이 밝다. 고배를 마시다. 영덩이가 가볍다. 발로 쓰다.	내 코가 석자다. 바람을 피우다 싼게 비지떡 바가지를 굶다. 말이 씨가 되다. 시치미를 떼다. 귀신이 곡을 하다. 쥐뿔도 없다.

저 자 소 개

이 미 경(Mi-Kyung Lee)

정회원



- 2002년 8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이학석사)
- 2011년 3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청각언어장애아 교육(교육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언어발달장애, 학령기 언어장애, 외국인 학습자

강 안 영(An-Young Kang)

정회원



- 2005년 2월 :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언어재활학과(재활석사)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대학원 언어병리학과(박사과정 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연세 말언어인지연구소 근무

<관심분야> : 언어발달장애, 학령기 언어장애

김 윤 주(Yun-Joo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이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아동영어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유아교육, 교수-학습방법, 교수매체